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09.06.(제3770)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불드시는 분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내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지키겠노라 다짐했다.

그러나 누군가 내게 말했다.
그것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시리라
그분을 믿을 수는 있다고.

그래서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오직 그분만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런 말이 들렸다.
“아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조차
그분에게서 온 것이다.”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 조지 헐버트 (George Herbert) -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오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1:00

성령강림 후 제15주

사회: 조상현 장로

오르간전주.....반 주 자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입 레 송...347장(1,3절)....다 같 이 ※영 광 송.....3장.....다 같 이
※예배의부름.....사 회 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이다 (시 149:1)

※경 배 찬 송.....8장.....다 같 이 현 금.....다 같 이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봉 헌 송...211장(1절)....다 같 이

눈앞의 현실과 한계만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웠던 모습을 회
개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주
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
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
를 드립니다. 아멘.

※교 독 문...56번(시편 128편)....다 같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
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 도.....조상현 장로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현 금.....다 같 이

※봉 헌 송...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목회·봉헌기도.....남기정 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조상현 장로

구 약 창 세 기 18:9-15

신 약 로 마 서 5:1-5

특 별 찬 양.웃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이복음 집사

증 언.....남기정 목사

『 사랑의 웃음 』

현신의 찬송.....384장.....다 같 이

※복 의 선 언.....남기정 목사

※후 주.....반 주 자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43	영 아 부	13

전교인 수양회

헌금			
주 일 헌금	1,474,000	생 일 헌금	150,000
교회학교헌금	212,500	선교헌금	150,000
월정헌금	3,610,000	창립70주년헌금	1,400,000
십일조	12,410,000	특별헌금	20,000
감사헌금	895,000		
합계 20,321,500원			

새벽기도회		수요성서연구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9월 9일(수)10:30, 손민승 목사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월 - 화	시편 강해 손민승 목사	사무엘상·하 2 “하나님 손에 들린 돌”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수 - 목	레위기 강해 권오진 목사	본문: 사무엘상 17장 40-49절		박지연 전도사
금 - 토	히브리서 강해 오석만 목사	- 금 주 기 도 : 홍주연 권사 - 다음주일기도 : 황영진 권사	방 학	중예배당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첫 단 추 기 도 회	첫째 주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 요 성 서 연 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 요 성 령 집 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초 등 부 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목 장 모 임	매월 둘째, 넷째주 주일예배 후	목 장 별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장춘기 문정이	정미애 이경희A 김성옥 이현희 안현수 심수현	
안내위원	최명애		
강단헌화	(김종근 이유진 김리원)		
수납위원	김동수 심영관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조규성 김명훈 이성호		

지난 주일 증언

“사랑이 사랑을 깨웁니다”

구 약 창 세 기 1:26-28

신 약 마 태 복 음 25:31-40

설 교 : 권 오 진 목사

아현중앙교회에서 경험하는 감동들

아현중앙교회에 부임한 후 성도님들을 뵈면서 많은 감동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보면서, 어쩔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을까 감동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모습에 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주차봉사, 주방봉사, 예배섬김, 주일학교,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님들까지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시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모습에 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주말반찬봉사, 문화교실, 수요전도대와 학교전도대, 6K, 이웃사랑프로젝트 등, 우리 아현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최근에 특별한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나이가 들어 보육원을 나와 자립을 해가는 분입니다. 어렸을 적 버킷 림프종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힘겨운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만 뇌로 전이가 되어 지난주에 뇌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그 새가족을 위해 한 목장에서 바자회를 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쳐 수술비를 마련해서 지난 주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부모님 대신 보호자로 병원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어떤 성도님은 손수 음식을 하셔서 매주 전달해 주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엔지오 단체와 연결해서 앞으로 도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청년을 돕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창립 70주년을 맞아 앞으로 우리 아현중앙교회를 어떤 교회로 자라나게 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하는 교회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현중앙교회로 불러 주셔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이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왜 우리는 선한 행실을 보면 감동하는가

그러면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이 감동의 실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영적인 신비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 가난하고 연약한 아이를 돕는 모습을 볼 때 이상하게도 우리의 영혼은 깊은 기쁨을 느끼고 가슴 깊은 곳에서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 기쁨과 감동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과 사랑의 원작자

창세기 1장 26-28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

습니다. 여기서 ‘형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체렘’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이 단순히 결모습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사랑을 이 땅에 비추는 거울이자 대리자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보다 사랑 그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본래부터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을 다스리라 하신 사명 역시 억압과 수탈의 다스림이 아니라, 만물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물을 보살피라는 ‘사랑의 다스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며, 그 사랑이 우리 안의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목격한 다른 이의 마음속 ‘체렘’이 반응하며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선이 선을 깨우고, 사랑이 사랑을 깨우는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에 이어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 신앙의 종말론적 결산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목양 현장에서는 무리지어 다니다가 잘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양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헐기 왕성한 염소를 함께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염소가 양을 들이받으며 자극을 줄 때 양들이 오히려 긴장하면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일과가 끝나고 마침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목자는 양과 염소를 엄격히 갈라놓습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는 선인과 악인,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섞여 살아가지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마지막 날에는 반

드시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 판가름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35-36절입니다.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홈리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들은 상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 다. 그들의 사랑은 반사적이었고, 무의식적이었으며, 삶의 자연스러운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이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채워져 있었기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았을 때 계산 없이 손을 내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삶에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열매로 드러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본 심령은 그 사랑을 가두어 둘 수 없어 자연스럽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로 흘러보내게 됩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선한 행실은 곧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요, 그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목격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역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이 아픕니다.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경제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 나름대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창조 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DNA가 깨어나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YOU DID IT TO ME”

인도 콜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는 36세가 되던 해, 달리는 열차 안에서 마태복음 25장 본문을 읽다가 사도 바울처럼 폐부를 찌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평생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며 수녀들과 피곤할 때마다 손가락 다섯 개를 하나씩 구부리는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You / did / it / to / me” (그에게 / 한 것이 / 곧 / 내게 / 한 것이다)

손가락 다섯 개를 구부릴 때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손을 내밀 때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70주년 기념 나눔콘서트와 우간다 취약 아동을 위한, ‘초즌 캠페인’

을 진행합니다. 우간다는 몇년전까지도 극심한 내전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은 나라입니다. 소년병이 있던 나라입니다. 우간다의 수많은 취약 아동들은 가난과 결핍 속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 본 경험도 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평생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아이가 생전 처음으로 후원자를 선택하는 그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체렘)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도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한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선물해주는 일,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You did it to me”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근원 되시고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민 나의 손 끝에서 만날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고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선이 내 안의 선을 깨우고, 내 손을 통해 나타난 사랑이 다른 사람 안의 사랑을 깨워갈 때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은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You did it to me”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십 일 조 헌금 (강현중 김숙자) (구본수 송명희) (김주인 김춘강) (김철희 이후남) (김한중 김현숙) 박기순 (박범택 윤옥희) 서태희 (허중수 강명희) (강용국 노복순) (권원자 이소영) 김예린 김예원 (류기운 송현숙) 류한아 박선례 (박영식 정명자) (박재훈 김보라) (박창환 조영신) (손세운 광정민) 신경희 신영애 신재신 우철주 유은애 이경희B (이성호 강숙희) (이용학 백현애) 이진경 이진숙 (이환 김미영) 장균복 (장만섭 고순문) 최명순 (최영섭 서인숙) 홍정순

월 정 헌금 김준자 (조영의 태성희) (김광선 김영중) (김상진 이수미) 김연옥 (김영숙 유하동) (김준식 김민식) (김치년 홍주연) 박정미 박주희 박현중 (송양근 조혜선) 신상임 엄영숙 윤인숙 윤희열 이경애 (이남규 이은선) 이은숙 이해순 이희숙 이휘찬 이해수 (임현정 권소운) (장재혁 이은영) (조성규 권은정) 차정옥 (최영섭 서인숙) 홍순옥

감 사 헌 금

(권오진 조고은) : 여름신양활동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초촌 캠페인, 나눔콘서트, 전교인수양회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범택 윤옥희) :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소서.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권영만 최명희) :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예원 김테민) :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삶 살게 하시고 제주도 선교도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종근 이연석) : 무더운 여름에 실족치 않게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병익 :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로튼가족 : 가족들의 방문을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봉주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상근 차용분) :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추도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성옥 : 건강한 몸으로 생일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송주영 : 모든 식구들 건강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혜순 :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한나 : 남편의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축복해주시고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열어주소서.

조현진 :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승준 :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옥 :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 건강주시니 감사합니다.

홍정문 : 가족의 건강과 평안에 감사드립니다.

생 일 헌 금 김병익 서성옥 여혜순 이한나

선 교 헌 금 오혜리 이진숙 (임현정 권성호) 총여선교회(위클리프)

특 별 헌 금 강단헌화 (김덕환 최현숙)
창립70주년(초준) 무명 (전교인수양회) (김기석 나영임) (이유진 유세연) 장로회 9여선교회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주일증언** :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남기정 목사께 감사드리며, 전교인 수양회 관계로 주일 애찬 대신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제자양육반 <생명의 삶> 제3기 수강 신청 안내** :
주중반(수요일, 9월 9일 개강) 저녁 7-9:30
주말반(토요일, 9월 12일 개강) 오전 10-12:30
9월 9일(수)까지 교회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2만원, 총 13주 과정)
- **9월 임원회** : 13일(주일) 자료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교우동정

- **이사** : 곽찬웅 집사 한애선 권사 / 마포구 신수로6길 12
- **결혼** : 이세빈 양(이재화 홍석은 권사 1녀)과 진영현 군의 결혼식이 12일(토) 오전 11시 30분 로얄파크 컨벤션 파크홀(1층 ☎02-793-2900)에서 있으며, 교회버스가 10시 40분에 출발합니다.
- **교직원 휴가** : 송호준 전도사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9월 중 행사

- **목장모임** : 13일, 27일(주일)
- **총목자모임** : 13일(주일) 오후 2시, 찬양대실

■ 금요성령집회(9월 11일)

찬	양	익투스 찬양단
설	교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다” (시편 42:1-11) 권 오 진 목사

■ 주일아침예배(9월 13일)

대 표 기 도	김 기 석 장로
성 경 봉 독	이 지 혜 B 집사

■ 주방봉사

- 이번 주 : 전교인수양회
- 다음 주 : 4초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 로 목 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 담 임 목 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 련 목 회 자 송호준
- 전 도 사 박지연
- 교 육 전 도 사 서지수

- 소 속 목 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 가 지 휘 김정희 김병일
- 반 주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